

광주 남구, 장애인 위한 따뜻한 복지

발달장애인 가정에 조립식 주택 지어 주고 자녀 취업 지원 장애학생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로 돌봄공백 해소

광주시 남구가 추운 겨울 취약계층인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정책을 내나 눈길을 끌고 있다. 차가운 겨울 한파에도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겨울방학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나선 것이다.

◇따뜻한 보금자리=엄마와 아들 딸 모두가 발달 장애인인 한부모 가정에 50년이 지난 낡은 흙집에서의 힘겨웠던 삶을 정리할 따스한 보금자리가 생겼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대촌동 외딴 곳의 낡은 흙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A씨 가족은 최근 새 보금자리인 조립식 주택으로 이사했다.

한부모 가정인 A씨 가족은 엄마, 아들, 딸 3명으로 모두 발달 장애인이다. 이들은 50년이 경과한 노후 흙집에서 추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었다.

이들 가족이 머물던 집은 흙으로 지어진 노후 주택인데다, 지난해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심각한 균열과 파손 등이 발생해 주거생활에 위협을 받는 상태였다는 게 남구의 설명이다.

특히 벽이 무너져 내려 주방에 큰 구멍이 생겼고, 이 구멍으로 길집음이 드나드는가 하면 녹이슨 싱크대와 곰팡이 등 주방 환경도 매우 열악해 온전한 식사마저 불가능했다. 또 집 천장과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붕괴가능성이 높아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A씨 가족은 주택 붕괴의 심각한

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의 사정을 접한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와 남구는 10여 년전부터 A씨 가족을 끈질기게 설득했으나 A씨 가족은 사별한 남편의 추억과 인근에 마련된 묘소 때문에 위험한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재차 설득하는 과정에서 남구와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엠마우스 복지관은 협업을 통해 이들 가족의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낡은 흙집이 있던 자리에 조립식 주택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이다.

조립식 주택을 짓기까지 남구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 철거 등 행정 및 사례관리 지원에 앞장섰고,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발달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통한 임시 거주지 및 임대료 지원,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준 4000여 명의 후원자로부터 성금 995만원을 모금했다.

또 엠마우스 복지관에서는 A씨 가족의 금전 관리를 지원했으며, 아들 B씨는 복지관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엄마와 아들, 딸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더욱 더 행복한 복지 남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학생들 겨울방학=추운 겨울 겨울방학 때문에 학교에 가지도 않아 집 밖을 나서기 힘든

장애학생도 지원한다. 남구는 겨울방학 동안 중·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없는 남구내 장애학생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이용자는 특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왕성한 외부 활동을 돕기 위해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로 28만 1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별급여 이용 기간은 지원 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급여 지원금은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한도액 내에서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방학기간 이용 후 지원금이 남더라도 개학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특별급여 확대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심적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며 "한시적 특별급여 정책을 적극 홍보해 관내 장애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구 생활폐기물 수거 광주 서구청 공무원과 지역 주민 100여명은 특별환경정비를 실시, 최근 폭설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생활폐기물 8t 가량을 수거했다. <서구청 제공>



서구, 금연환경조성 장관표창 광주 서구는 최근 제33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환경조성 우수사례 기관'에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서구보건소는 유스퀘어 광장 등 관내 주요 금연구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금연클리닉 홍보, 금연 홍보물 배부, 금연상담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금연캠페인을 추진했다. <서구청 제공>

'광주의 동리단길' 동명동 카페의 거리 쾌적해진다

음식물쓰레기통에 가림막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인 동명동 카페거리가 쾌적한 거리로 바뀐다.

19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동명동 카페의 거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20여 개에 꽃그림 가림막을 설치했다.

금남로·충장로는 물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해 있는 동명동 카페의 거리는 광주의 '동리단길'로 불리며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색적인 카페와 음식점 100여 개가 한꺼번에 내놓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동명동 카페거리 도로변에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심한 악취로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동구는 음식물쓰레기통을 건물 안쪽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어려운 음식물쓰레기통에는 가림막을 씌우기로 했다. 이 같은 새로운 시도를 위해 동구는 수차례 카페의 거리 일대 건물주와 영업주들을 만나 면담하고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17곳에 가림막 20개를 설치했다.



음식물 수거통에 설치된 꽃그림 가림막.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의 다양한 청소년사업들이 동명동 카페의 거리를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시키고 있다"면서 "깨끗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동구를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구, 돌봄 이웃 대상 겨울나기 밀반찬 지원

독거노인·장애인·1인 가구 주민 500세대 대상 서비스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지원에 나선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다음달 19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1인 위기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500세대를 대상으로 '행복 더하기! 영양 듬뿍 밀반찬 나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동절기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이 기탁한 후원금 4000만 원으로 추진된다.

북구는 동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천 받은 각 가정에 4회에 걸쳐 밀반찬을 지원한다.

밀반찬 전달과 더불어 독거노인들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통한 고독사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수요도 파악 한다는 게 북구의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1967명에게 밀반찬을 지원한 바 있으며 취약계층 7925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 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